

비온뒤 땅굳듯 평화육교 재가설 탄력

익산시 대체우회도로 확장계획안, 주민 수용 난항 딛고 사업추진 재점화... 2020년 완공

익산시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이 착공 전부터 많은 난항을 겪다가 익산시가 내놓은 대체우회도로 확장 계획안을 지역주민들이 수용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1975년 준공된 평화육교는 2011년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받아 재가설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공사기간 동안 발생할 대체우회도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과 공사구간의 차량출입 전면 차단으로 인한 목천 지역 소상공인들이 입는 피해 때문에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은 주민들의 반발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어왔다.

지역주민들은 대안으로 기존 평화육교 인근에 임시가설교 설치를 요구했으나 공사비가 100억원정도 추가 소요되어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KTX호남고속철도를 횡단하는 철도기념복 설치에 오히려 KTX호남고속철도와 목천대로의 교통정체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익산시의회 김충영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익산-대야 복선전철 노반 건설공사용 임시도로를 우회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무산되었다.

시는 관계기관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다가 지난 8월 28일 목천지역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업목적과 현지여건 등 익산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시가설교 설치비의 1/10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체우회도로 확장 계획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목천 지역 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이 방안을 수용해 사업추진의 실타래를 풀게 됐다.

특히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경험과



익산시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이 착공 전부터 많은 난항을 겪다가 익산시가 내놓은 대체우회도로 확장 계획안을 지역주민들이 수용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33년 경력의 행정전문가답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충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기존 계획된 2차선 대체우회도로를 4차선으로 조정하면 통행차량 감소규모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주무부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긴 줄다리기를 끝에 왕복2차선→4차선으로 확장하는 대체우회도로 차선 조정 방안을 채택시킬 수 있었다. 지난 9월 28일 이 대체우회도로 확장 계획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설계를 일부 조정하고 있다.

평화육교 재가설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비포함 307억원과 익산시가 190억원씩 각각 부담, 총 497억원을 투입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다. 지난 7월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선정됐다.

내년 3~6월 대체우회도로가 설치되고, 7~12월 육교철거, 2019년 1~12월 육교재가설 공사에 들어가 2020년 6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2018 익산 전국체전 카운트다운

D-365 기념행사 개최... 600여 시민, 성공개최 기원

전국 스포츠 선수들의 열정과 꿈의 무대인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시는 12일 오후 익산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정현을 시장, 송하진 도지사, 소병훈 시의장, 이춘석, 조배숙 국회의원, 황현 도의장, 시도의원, 시민서포터즈, 익산사랑운동추진협의회 회원 등 6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D-365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기념행사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주요 내·외빈과 시민대표들은 함께 오색 LED로 제작하여 설치된 전국체전 카운터기를 점등하며, 성공적인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또한 신명나는 익산시립공물단의 다양한 공연, 이지역 화합문화체전추진 총괄본부장과 시민들로 구성된 오카리나팀 공연, 특공무술공연, 치어리더공연, 전국(장애인)체전 홍보동

영상 상영, D-365일 카운터기 점등식과 연예인 공연 등이 행사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1년 남은 시점을 기념하고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성공적인 체전이 개최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계기로 익산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018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지난 1월 전국체전담당관실을 발족하고 시민모두 함께 준비하여 참여하는 '화합체전'을 모토로 전국체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익산사랑운동추진협의회(10만여명)와 2018 전국체전 시민서포터즈(2018명)를 발대했다.

전국체전 로고송 공모전과 다양한 페이스북 이벤트 등을 개최하며 시민 모두 함께 참여하는 전국체전 만들기엔 온 힘을 쏟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통 자수의 가치 재조명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내달 18일까지 공예전 100여 작품 선보여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은 시민 열린갤러리 공모전의 네 번째 전시로 '피땀땀 손 자수 연구원 자수공예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군산 시민들에게 박물관 내 전시공간을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을 도모하고 군산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홍보하고자 마련되었다.

전시를 진행하는 '피땀땀 손 자수 연구원(원장 차수자)'은 군산시민들로 구성된 단체로, 무료 손 자수 교육,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 봉사, 아동청소년 체험 학습장 운영에 앞장 서며 우리 전통 자수의 가치를 꾸준히 알리고 있다.

'손으로 짓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피땀땀 손 자수 연구원 10여명 회원들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작품명 '갑투할

미', '인연', '꿈', '이런가 기대' 등 총 100여점의 작품이 박물관 1층 열린갤러리에서 전시된다.

또한 프랑스 자수 기법과 동양 자수 기법을 함께 볼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자수로 표현된 무명 침구류, 광목 커튼 등을 만나볼 수 있으며, 꽃무, 인두, 베슬, 검정고무신 등 소박한 전통 생활소품을 활용한 작품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전시는 내달 18일까지 진행되고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한 자수공예 작품들을 경험하고 싶은 관람객들에게 좋은 만남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시민 열린갤러리 네 번째 전시는 우리 전통 자수의 실용성과 예술성을 보여주는 자리로 기획되었다"며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이 오롯이 살아 숨 쉬고 있는 자수공예를 통해 관람객들이 한국 전통의 미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작년 한 해 동안 100만여명의 인과가 방문했으며, 올해의 경우 매일 평균 9만



여명이 방문, 군산 원도심 활성화와 근대화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전국 5대 박물관으로 선정되고 박물관 인근의 7개 건물이 테마 단지화 되면서 전국적인 가족단위 체험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주말에는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관람객의 모습이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다. /군산=김관근 기자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기한 12월 말까지 연장

군산시는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기한을 당초 8월 말에서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8월 말 기준 전국 평균 교체실적이 64%에 불과하여 표지 미교체 장애인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는 '사각형'의 기존 주차가능 표지에서 '원형'의 새 주차가능 표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교체기한이 연장되면서 오는 12월 말까지 기존(사각형) 주차가능 표지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새(원형) 주차표지로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표지 교체기한 연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아나바다장터 참가신청 하세요"

군산시 수송동행정복지센터 20일까지 전화·방문 접수 지역거주 누구나 참여 가능

군산시 수송동행정복지센터(동장 전중신)에서는 나눔과 희망의 애정촌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2017년 하반기 아나바다 장터'의 개최를 앞두고 행사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아나바다장터는 오는 10월 21일 9시~14시, 수송체육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동에서는 아나바다장터 참여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군산시에 거주하는 시민, 학생, 단체, 기관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장터 품목은 개인 소장품 중 남들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20일까지 수송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 454-7661~7664)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관근 기자

또한 아나바다 장터 참여 신청과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회원가입 후 행사당일 장터 판매 행사에 참가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된다.

전중신 수송동장은 "이번 개최로 10회를 맞이하는 수송동의 아나바다 장터는 장터 운영 뿐 아니라 다양한 공연과 함께 사랑의 삼겹살 등 풍성한 먹거리부스 운영으로 시민들이 웃고 즐기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군산 시민들이 장터를 방문해서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수송동 아나바다장터'는 연인원 1만 5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며 지원절약과 환경 보호를 추구함과 동시에 판매수익금을 자활기탁하여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시민문화행사로 2013년부터 연 2회 개최되어 명실상부 군산시를 대표하는 '시민 나눔 놀이터'로 자리를 잡았다. /군산=김관근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9)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